



### 김현수 3경기 연속 안타 메츠전 2안타 2타점

#### 필라델피아 이적 후 첫 2타점

김현수(29·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팀을 옮긴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타점 2개를 올렸다.

김현수는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의 시티 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그가 한 경기에서 2타점을 올린 것은 올 시즌 두 번째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이던 6월 1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82일 만이다.

지난달 31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 이후 4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때려낸 김현수는 지난 3일 마이애미 말린스전부터 이날까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김현수의 시즌 타율은 0.223에서 0.229(192타수 44안타)로 올라갔다.

선두타자로 나선 3회초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김현수의 희망은 5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팀이 0-10으로 뒤진 5회 무사 1루 상황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은 김현수는 상대 선발 리파엘 몬테로의 5구째 체

인지업을 노려쳐 우전 안타를 뽑아냈다.

김현수의 안타로 무사 1, 3루의 찬스를 잡은 필라델피아는 캐머런 러프의 땅볼로 1점을 올렸다.

러프의 땅볼 때 2루로 나아간 김현수는 안드레스 블랑코의 안타로 3루까지 나아갔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필라델피아가 1-10으로 뒤진 6회 1사만루 상황에서 김현수 타석이 돌아왔고, 그를 상대하던 메츠 구원 투수 폴 제발트가 폭투를 저질러 필라델피아는 1점을 추가했다.

1사 2, 3루의 타점 찬스에서 김현수는 제발트의 6구째 시속 92마일(약 148km)짜리 직구를 노려쳐 우월 2루타를 작렬, 2, 3루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김현수는 블랑코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시즌 17번째 득점도 올렸다.

김현수는 8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필라델피아는 6회 김현수의 활약 속에 5-10까지 따라붙었지만, 메츠에 7-11로 졌다. 필라델피아는 시즌 85패째(52승)를 당했다.

/뉴시스

## 11개국 시범단 태권도원서 '압!'

글로벌태권도시범페스티벌  
총 200여명 참가 실력 뽐내  
러시아 감독 만족감 드러내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이하 연맹)이 공동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 태권도의 품새, 겨루기와 함께 시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다. '2017 글로벌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진행 되었으며 이번 페스티벌에는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몽골, 네덜,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총 11개국 200여명의 각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 선수들은 태권도원에서 국가별 훈련 및 합동 훈련, 태권도시



'2017 글로벌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해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범과 관련된 세미나,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합동훈련, 그리고 지난 2일과 3일에는 '제2회 무주 반딧불 축제' 행사장에서 국가별 기량을 뽐내는 태권도시범 공연과 플래시몹 시연 등을 펼쳤다.

이번 페스티벌에 러시아 국가대표 시범단을 인솔하고 참가한 티릴

라코바나탈리아 감독은 "태권도원 맵 시범단과 합동훈련, 그리고 지난 2일과 3일에는 '제2회 무주 반딧불 축제' 행사장에서 국가별 기량을 뽐내는 태권도시범 공연과 플래시몹 시연 등을 펼쳤다. 이번 페스티벌에 러시아 국가대표 시범단을 인솔하고 참가한 티릴

시범은 태권도를 매개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가 융복합된 콘텐츠다"며 "태권도 시범의 개발과 활용으로 새로운 태권도 관광시장을 개척하고자 이번 글로벌 태권도 시범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나훈아 콘서트 10분만에 3만석 매진

#### 명불허전 명성 자랑

가수 나훈아(70·최홍기)가 명불허전의 명성을 자랑했다.

5일 가요계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 예스



24 등에 따르면 나훈아의 컴백 콘서트 3만 장이 이날 오전 10시 예매 시작 약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나훈아는 오는 11월 3~5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같은 날 24~26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 12월 15~17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콘서트를 연다.

서울 공연 약 9000석은 7분 만에 매진 됐고 대구 공연은 10분, 부산 공연은 12분 만에 티켓이 모두 팔려나갔다.

이번 나훈아의 콘서트 예매를 앞두고 중장년 팬들 사이에서 티켓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다.

/뉴시스

11년 만인 지난 7월 새 앨범 '드림 어게인(Dream again)'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비주의 태도로, 방송은 물론 팬들과 접촉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 팬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나훈아가 콘서트를 여는 건 2006년 12월 데뷔 40주년 공연 이후 처음이다.

콘서트 업계 관계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하겠다는 중장년이 상당수"라면서 "콘서트 당일 공연장 앞에 압포라도 구하기 위한 중장년 층 줄이 늘어서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 이명기, 윈 발목 염좌 KIA 1군 엔트리 제외

KIA 타이거즈 외야수 이명기(30)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다. KIA는 4일 "지난 3일 넥센 히어로즈전에서 윈 발목을 접질렀던 이명기가 오늘 정밀검진을 받았다. 검진 결과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기는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지난주 KIA 타자 중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했던 이명기다.

전날 이명기는 9회말 수비 도중 펜스를 충돌하면서 윈 발목 부상을 당했다.

KIA 관계자는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다친 부위가 좀 부어 있다. 원래 좋지 않은 부위를 다쳐서 우선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계획이다. 코칭스태프에서 상태를 본 후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아이유 데뷔 9주년 팬미팅

#### 24일 리메이크 앨범 공개

가수 아이유(24·이지은)의 데뷔 9주년 기념 팬미팅이 이달 말 열린다고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가 5일 밝혔다.

아이유는 오는 24일 오후 3시, 7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데뷔 9주년 기념 팬미팅을 열어 팬클럽 '유애나' 회원들을 만난다.

아이유는 이번 행사를 소극장 콘셉트로 진행, 9년 동안 함께한 팬과 소통한다. 이날 무대에서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두 번째 리메이크 음반 '꽃갈피'의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